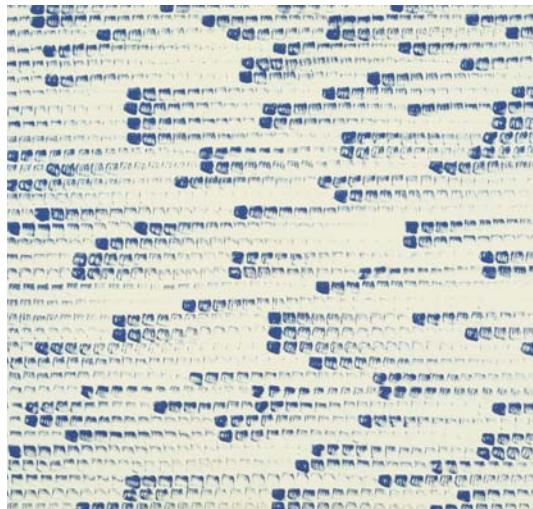


'비엔날레 특수' 지역 갤러리 손님 맞을 준비 분주



이우환 작 'From point'

설치미술가 양혜규씨는 올해 열리고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현대미술제인 13회 카셀 도큐멘타(Documenta)에 45m의 대규모 설치작품 '진입 : 탈 과 거시제의 공학적 인구'를 전시,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 작가가 도큐멘타에 초청받게 된 것은 지난 1992년(육군병) 이후 20년 만이다.

양씨의 도큐멘타 참가는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 기간 때 한국을 찾았다가 선재아트센터에서 열린 양씨의 '셋을 위한 목소리' 전을 관람한 카셀 도큐멘타 예술감독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르 기예프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시립미술관 이우환전·무등현대미술관 '다원주의'전 등

광주 찾는 해외 미술계 인사들 위한 명품 전시 추진

지역작가 소개·해외진출 기회 제공 위한 움직임 활발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세계 미술가에서 인정받는 한국 대표작가 이우환 전시를 추진한다.

시립미술관은 최근 재일교포 하정웅 명예관장의 5차 작품 기증으로, 이씨 작품만 모두 37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특히 이씨의 70년~80년대 작 '점'과 '선', '바탕' 시리즈에 이어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조용'을 타이틀로 삼은 연작 시리즈와 2000년대 '대화(Dialogue)'를 주제로 한 신작까지 모든 작품 형태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공립미술관으로서 비엔날레 기간 광주 대표 미술관의 이미지를 확고히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시립미술관은 이 기간 북경금일미술관과 연계, 미술관 20주년 기념 전시도 기획중이다.

가로 알려져 있다.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소아르갤러리도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으로 전시를 꾸며 광주를 찾는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불겁니다.

상록전시관은 지역 젊은 작가 작품으로 채운 '책상은 책상이다' 전을, 소아르갤러리는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즐기는 예술'을 내건 '유희' 전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을 유쾌한 공간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대안공간인 미테우그로도 대인시장에서 실현성·참신함을 갖춘 젊은 작가들을 선보인다. '빛모습'을 담은 작품들로 알려진 이조희씨는 이 기간 평면 외에 영상·설치 작품까지 영역을 넓혀 작품을 내놓고, 심리치료사와 작가가 함께 참여해 미술을 치유의 매개체로 한 작품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남포미술관도 비엔날레에 맞춰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기획전 '건설적 의자' 전을 연다. '움직이는 예술마을'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이아남·김상균·이윤복·장승효·지용호·한선현·홍성철 등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갖춘 작가 7명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예정이다.

이외 스페이스K 광주에서는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런던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20~30대 유망 신진작가를 조명한 '크리에이티브 런던' 전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연다. 디즈니 캐릭터 오스왈드를 명화나 동물 캐릭터에 숨겨 '오스왈드' 찾기를 하는 애리 벤딕스, 남성의 시선으로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에서 탈피 여성의 일상적 모습과 흔적을 캔버스에 담아낸 캐롤라인 워커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수도권 주요 갤러리들도 이 기간 국을 찾는 세계 미술계 인사들을 겨냥, 전속 작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한국을 찾는 세계 미술계 인사들에게 다가서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ju.co.kr

무등현대미술관은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홍경택·이아남·홍성민·유재명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을 내세워 '다원주의' 전을 마련한다.

홍경택씨는 아시아 미술계가 주목하는 신진 스타작가로, 지난 2007년 홍콩 크리스티의 봄 경매에서 당시 한국작품으로는 최고가(7억 7760만원)로 낙찰됐던 '연필'의 작가다. 이아남씨도 최근 런던올림픽 기간 영국 해롯백화점에서 디자털 병풍 '한류~해피니스'를 선보이는 등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다. 한국화가인 홍성민은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작가로, 유재명씨는 광주시회환경예술제에 참여하는 등 대중화의 소통을 위한 예술을 강조하는 작

가로 알려져 있다.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소아르갤러리도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으로 전시를 꾸며 광주를 찾는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불겁니다.

상록전시관은 지역 젊은 작가 작품으로 채운 '책상은 책상이다' 전을, 소아르갤러리는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즐기는 예술'을 내건 '유희' 전을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을 유쾌한 공간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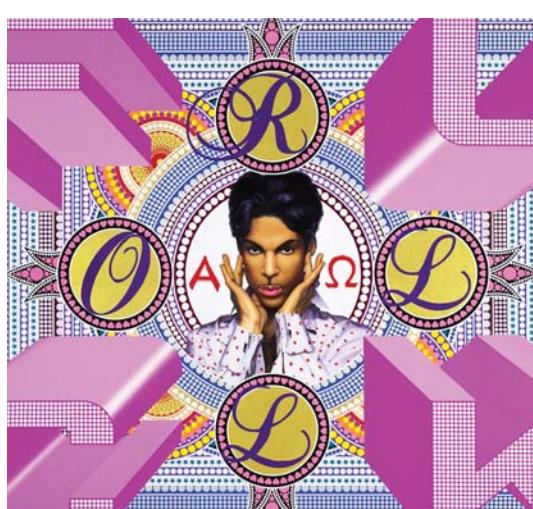
대안공간인 미테우그로도 대인시장에서 실현성·참신함을 갖춘 젊은 작가들을 선보인다. '빛모습'을 담은 작품들로 알려진 이조희씨는 이 기간 평면 외에 영상·설치 작품까지 영역을 넓혀 작품을 내놓고, 심리치료사와 작가가 함께 참여해 미술을 치유의 매개체로 한 작품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남포미술관도 비엔날레에 맞춰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기획전 '건설적 의자' 전을 연다. '움직이는 예술마을'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이아남·김상균·이윤복·장승효·지용호·한선현·홍성철 등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갖춘 작가 7명의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예정이다.

이외 스페이스K 광주에서는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런던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20~30대 유망 신진작가를 조명한 '크리에이티브 런던' 전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연다. 디즈니 캐릭터 오스왈드를 명화나 동물 캐릭터에 숨겨 '오스왈드' 찾기를 하는 애리 벤딕스, 남성의 시선으로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에서 탈피 여성의 일상적 모습과 흔적을 캔버스에 담아낸 캐롤라인 워커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수도권 주요 갤러리들도 이 기간 국을 찾는 세계 미술계 인사들을 겨냥, 전속 작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한국을 찾는 세계 미술계 인사들에게 다가서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ju.co.kr



홍경택 작 'Fuck & Roll'

문화재단,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성악가를 뽑는 '2012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이 진행하는 폐스티벌 오!광

주 정을성 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콩쿠르는 대상 1000만원, 2등 6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 대회다.

참가자격은 만 20세부터 34세까지

의 내국인이며 남자는 7일, 여자는 14일이 신청 마감일이다.

1차 예선은 11일(남자)과 18일(여자)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열리며 2차 예선은 25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본선은 오는 9월 1일 빛고을시 민문화관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66.

/김미온기자 mekim@kwanju.co.kr



변성호

배혜경

변예은

온 가족이 함께 고품격 클래식 나들이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6일 광산문예회관

3인가족 이상 무료 10일까지 신청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가 열린다.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는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예회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방학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주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선정팀인 광주여성필은 파트너인 광산문예회관과 '유쾌한 콘서트', '11시 병아리 음악회' 등 다양한 주제로 연주회를 열어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과 영화음악,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플루트 가족인 변성호(광신대 교수), 배혜경(복포대 등 출

강) 부부와 딸 변예은(이화여대 음대 1년) 양이 가요 '마법의 성'과 고색의 '램버린', 개념의 '리골레토 환상곡'을 들려준다.

또 피아니스트 장효중, 소프라노 이명진, 전자 바이올리ニ스트 강명진씨가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마스카니의 '카발리에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거쉬인의 '포기와 베스' 중 '썸머타임',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영화 '시네마 천국' 중 '사랑의 테마' 등이다.

전석 1만원, 부부 등반이나 3인 가족 이상은 무료(10일까지 신청 문의)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창단된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200여회가 넘는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다문화M+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960-8989. /김미온기자 mekim@kwanju.co.kr



유부녀 수지, 첫사랑 봉필을 호텔서 만나다

'발칙한 로맨스' 19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첫사랑과의 은밀한 만남,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유쾌한 '19금 연극' '발칙한 로맨스'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1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발칙한 로맨스'는 초연 때 '달콤한 원나잇'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됐던 작품으로 '19금(禁) 심야연극'이란 독특한 컨셉과 코믹 연기의 달인 김수로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주인공 수지와 봉필은

세계적인 감독이 돼 한국을 찾고 수지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한다. 봉필에게서 연락을 받은 수지는 이미 결혼한 자신이 첫사랑을 만난다는 사실에 잠시 죄책감을 느끼지만, 결국 고급 호텔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한다.

성인 연극을 표방한 만큼, 성적 대화들이 코믹하게 전개되며 다양한 역할을 맡은 멀티남과 멀티녀의 연할이 유쾌함을 더한다.

19세 이상 관람가. 티켓 가격 전석 2만 5000원. 평일 예매 20%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온기자 mekim@kwanju.co.kr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 - 9940 총장점 062) 227 - 9970
목포점 061) 262 - 9200 장흥점 080) 222 - 9975
서울점 02) 765 - 9940 순천점 061) 752 - 9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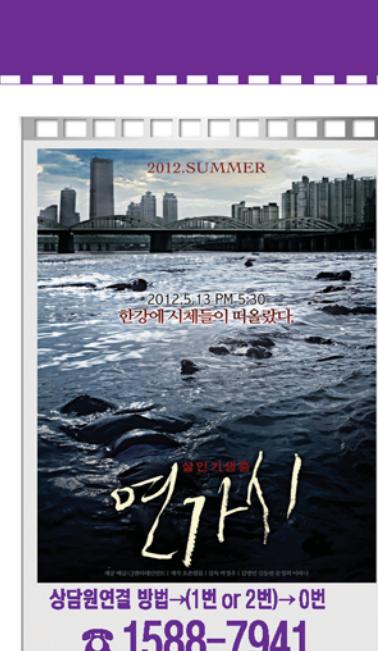


moviehellic

영화가 살아나는 곳 MEGABOX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상무
▪ 광주의 중심, 문화의 랜드마크
▪ 지역최초, 최다관의 진정한 멀티플렉스
▪ 편리한 주차공간

광주/전라지역 콜롬버스 하남
▪ 10개 상영관, 1,636석 규모의 고품격 멀티플렉스 영화관
▪ 넓고 편안한 좌석, 베이비비를 설치(8.9.10관)
▪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 VIP 시사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전남 서부권 교통의 메카
▪ 멀티쇼핑 내 위치



상당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7941

한남점		콜롬버스시네마	
1관	도둑들 / 새미의 어드벤처2	2관	도둑들
3관	다크 나이트 라이즈	4관	파리나 3DD / 새미의 어드벤처2
5관	파리나 3DD / 새미의 어드벤처2	6관	도둑들
7관	아이스 에이지 4	8관	그레이브 인카운터 / 명탐정 코난
9관	그레이브 인카운터 / 명탐정 코난	10관	아이스 에이지 4 / 다크 나이트 라이즈
도둑들	전설이 끝난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전설이 끝난다

매일매일 조조엔 선착순 30명 팝콘 공짜!
★캐릭터 피규어 라이브카페 1+1 행운★
평일 입장료 10% 쿠폰이벤트 할인~어브리무른~영화무료!!
호남최대주차장 / www.megabox.co.kr

